



◀서울캠퍼스는 정문과 후문에 자취, 하숙집이 뿔뿔히 밀집되어 있는 반면 수원캠퍼스는 방이 부족한 실정이다.

□ 하숙·자취촌 탐방

자기만의 독특한 공간을 설계하는 사람들

양캠퍼스 생활문화 조금씩 달라

전라북도 고창인 김군. 기숙사를 바라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다. 그러나 기숙사 수용인원을 보니 눈 앞이 캄캄해졌다. 지방 학생 수 보다 턱없이 모자란 수용인원에 자신이 쉴 틈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숙사를 포기한 김군은 수송문 끝에 겨우 자취집을 구하긴 했지만 이젠 비싼 생활비가 걱정이다. 끼니마다 밥 챙겨먹기도 만만치 않다. 그전에는 부모님이 알아서 챙겨주셨지만 지금은 스스로 차려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먹자니 돈이 많이 들고 귀찮아 하루세끼를 제대로 챙겨먹은 적이 거의 없다. 빨래하기와 방청소도 보통일이 아니다. 다행히 빨래방이 있어 큰 빨래는 맡기기도 하지만 며칠만 그냥두면 빨래통에는 빨래가 쌓이고 방은 금세 더러워진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을 하루에도

몇번씩 떠올리는 사람들 스스로 생활하는 법에 서툰 지방 학생들에게 서울살이란 만만한 것이 아니다. 그래도 이런 것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적응이 되는데 정작 이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이라고 한다.

김군이 느끼는 외로움처럼 캠퍼스에도 어느덧 개인주의가 널리 퍼져 통기타를 어깨에 걸치고 이방 지방을 오가며 뜨거운 라면에 소주잔을 기울이던 기억은 정말 그 옛날의 추억이 되어 버렸다. 서울캠퍼스의 학교 앞 자취, 하숙촌 사이에 엄청난 많은 술집과 노래방, 그리고 비디오방들의 방문화가 개인주의를 더욱 부추겼다. 수업이 끝난후 잠깐 모여 놀뿐 그이상은 없고 각자 자기생활에만 충실해한다. 자연히 자취, 하숙생들은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고, 간혹 혼자있기가 심심해 당구장이나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

도 눈에 띈다.

반면에 수원캠퍼스는 공동체적인 삶 속에서 같이 어울리고 있다. 자취생들끼리 수업후 모여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 가령 비디오를 보려고 하면 함께 모여서 봐야한다. 비디오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별로 없어 테이프와 함께 비디오도 빌려야 하기 때문이다. 시험기간이 되면 자취집은 복새통을 이룬다. 집으로 가는 시간을 절약해 자취하는 친구집에서 공부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또한 모처럼 회식이 있는 날이면 돈을 모아 고기와 술을 사서 한 자취집에 모여 즐겁게 논다. 서울캠퍼스는 차를 타고 어디에서나 놀이문화를 접할 수 있지만 수원의 경우는 신갈이나 수원역으로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에 자취방에 모이는 것이다.

양캠퍼스의 자취, 하숙생들의 의견도 다양했다. 서울캠퍼스 후문에서 하숙을 하고

있는 김준후(의예1)군은 "모든 생활이 편하고 하숙집 아줌마를 비롯해 다들 잘해준다. 교통도 편리하고, 놀 곳도 많아 너무 좋아서 불편한 점이 없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도 한달에 2번정도 찾아뵙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수원캠퍼스내 학생회관 옆 슬라브집에서 살고 있는 노재익(행정3)군은 "학교가 너무 외로워서 때문에 시아가 좋아진다. 집은 그리 멀지 않지만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에 자취를 하게 된 것이다. 자취를 하다보니 학우들과 가까워지고 학교에도 많은 애정이 생긴다."고 말해 생활 차이를 느끼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캠퍼스에 공히 원룸이 유행하고 있다. 독립을 추구한 주택 설계, 벽 없이 탁트인 실내공간, 욕실과 불박이 가구등의 편의시설, 원룸형 자취방이 새로운 주거문화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후문에서 외대후문에 이르는

도로변에 원룸이 밀집되어 있다. 주로 남들과 같이 생활하는 것이 싫고 혼자 조용히 살려고 하는 학생들이 집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은 다운타운에 원룸이 있지만 같이 돈을 모아 2-3명씩 살고 있기 때문에 자취집이나 마찬가지이다.

매년 학기초마다 서울, 수원캠퍼스에는 많은 자취, 하숙생들로 붐빈다. 해마다 그들은 자기만의 공간과 대학생활에 한껏 부풀어 있다. 그러나 매년 늘어나는 생활비에 학생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등록금도 비싸고 고민인데 생활비마저 적잖게 부담된다. 지방학생들을 위한 공간을 학교에서 조속히 만들어줘야 한다. 그리고 총학생회에서도 자취, 하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지호(사회과학부)군의 얘기는 지방 학생들이 느끼는 고민과 기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김동혁 기자)

□ 자취하숙생모임—자하연

'가족같은 분위기'

아무도 일어나라고 깨우지 않지만 아침 수업에 들어가기 위해 일찍 일어나 손수 밥을 지어 먹는다. 수업을 들은 후에는 쉴만한 빈방으로 들어가 저녁을 먹고 밀린 빨래를 하기 위해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근다. 집에서 지어주는 따뜻한 밥을 먹으며 학교생활을 하는 일반학생들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한 사람들이 서로를 의지해 가며 모여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는 집단이 있다. 바로 '자취하숙학생연합(자하연)' 이



▲자하연의 한 구성원인 이혜숙양

그러한 집단이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환경에 맞추어 독특한 생활을 하고 있다.

5~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하연 멤버들은 학교친구들이 집으로 귀가를 한 후에 그들의 아지트인 자취방에 모여, 저녁밥도 같이 먹고, 같이 시간을 내어 놀러가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한다. 가입에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하숙, 자취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자하연 회원인 이혜숙(국문과 3학년)은 "그저 시간이 맞는 사람들과 어울려 보니까 저절로 친하게 되었고 그냥 의미 없는 모임일 것보다는 이들을 지어 형식을 갖춘 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길 바랐다"며 자하연이 생겨난 배경을 설명해 주었다. 재미있는 일이 있었냐는 질문에 "한번은 술을 마시다가 웃기게 고스톱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남학생 한 명이 계속해서 지는 바람에 팬티만 입은 채 고스톱을 친 경우가 있었다"며 웃소리를 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자하연이 단지 술을 마시며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의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지 서로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가족적인 분위기이며 서로에 대한 믿음이 약하다거나 혼란스러운 단계는 이미 넘어섰고 앞으로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이러한 가족이상의 관계는 유지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최현일기자)

인터뷰



□ 하숙집 아줌마 이기남씨

'학생들에게 항상 고마움 느껴'

일년중 학생들이 하숙방을 가장 많이 찾는 때는 보름 2월달 신입생 합격자 발표가 난 직후에 가장 많이 찾는다. 합격생들이 기숙사에 못들어갔을 때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1학기 개강때도 많은 학생들이 방을 구하러 온다. 학기가 바뀔때는 방을 찾는 학생이 드물다.

하숙집 학생들에게 섭섭했던 때가 있다. 학생들이 알아서 잘하기 때문에 크게 섭섭할 때는 없었다. 오히려 내가 학생들을 소홀히 대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많다. 학생들이 나갈 때 좀더 잘 대해줄 것 하고 후회한 적도 있다. 그리고 가끔 말없이 하숙집을 물러 나가는 학생이 있었을

때 속이 무척 상했다.

학생들이 가장 마음에 들었을 때는 저의집에 하숙하는 학생들은 다 착하다. 항상 규칙적이고 예의바른 생활을 하기에 정말 좋고 학생들이 밥을 잘먹어 주었다. 저녁식사에 아무리 밥을 많이 해도 남지 않는다. 그리고 제가 하숙집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숙집에 머물러준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에게 항상 고마움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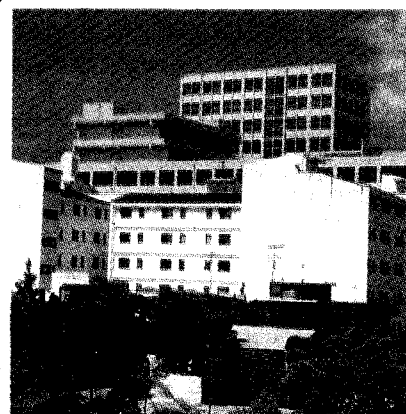
하숙비에 대해 학생들의 불만이 많을 텐데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하숙비도 불가피하게 오르게 된다. 타학교 주변도 마찬가지이다. 하숙비가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다. 제가 볼 때는 다른지역보다 경희대

앞이 하숙비가 싼 것 같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그다지 큰 불만은 없는 것 같다. 하숙비가 오를때마다 미안한 마음으로 잘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다면 얼마전에 내 마음을 많이 써줬던 학생이 생각난다. 그 학생이 물레 집을 싸가지고 열방에다 옮기더니 아무말 없이 하숙집을 나가버렸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이 있나 많이 생각했다. 학생들이 불편한 점이 있을 때 내게 꺼리낌없이 말해줬으면 하는데 그게 잘 안되는 것 같다.

물가가 많이 오를 때 반찬준비가 쉽지않을 텐데 커다란 문제는 없다. 식단을 잘 짜 철저히 가격을 계산해준다. 수입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학생들에게 최대한 맛있고 영양가있는 반찬을 마련해 주고 싶다. 그리고 학생들이 반찬투정을 거의 안한다. 물론 다커서 그렇겠지만, 그런 학생을 볼 때 대견스럽다.

(송준우기자)



▲지방학생들을 위해 서울·수원 캠퍼스의 기숙사 공간을 넓혀야 한다



□ 학교주변 하숙자취촌 현황

생활비 부담 커 기숙사 공간 확충해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의 경우 정문에서 회기역까지 이르는 거리에 밀집된 집들 중 자취비는 3~4명 규모의 전세가 1천5백만원에서 3천2백만원까지 천차만별이고, 월세는 대략 보증금 2백만원에 월 26만원에서 30만원선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고대앞 하숙비(27~30만원)와 비슷했다. 학교후문과 외국어대 근처에는 자취보다 하숙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하숙비가 월 27만원부터 35만원으로 정문 하숙비보다 약간 비쌌다.

수원캠퍼스 하숙 자취촌은 다운타운 주위에 형성되어 있는데 1달이 아닌 1학기 6~70만원씩 해서 1학기면 3백만원가량 든다. 원룸은 7명 전세가 1천6백만원에서 1천8백만원선, 빌라는 37명 전세가 7천만원 정도다.

경제능력이 향상되고 물가가 오르다보니 자연히 자취나 하숙비도 발걸음을 맞춰갈 수 밖에 없지 않은 높은 하숙 비용은 학생들에게 여전히 부담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숙사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데

시설도 미비하고 자리도 턱없이 부족한 게 지금의 현실이다. 특히 서울캠퍼스 기숙사(삼익원)의 경우 수용인원 4백46명 중 50%를 고시생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더욱 좁다. 기숙사비는 1학기당 27만원이며 식대비는 1달기준으로 11만5천원이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유성근사감은 "우리학교를 비롯 타학교도 공간이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는 문교부의 교육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라며 "지방에 있는 요즘 학생들이 기숙사를 먼저 생각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기숙사 시설을 먼저 생각하고 복지시설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수원캠퍼스 기숙사(애지원)도 현실적으로 시설이나 공간이 미비하기는 마찬가지다. 총 수용인원 5백42명에 1학기 기숙사비 25만원 밥을 먹으면 5~60만원 정도다. 그러나 수원 캠퍼스는 정문 옆에 새 기숙사 우정원을 짓고 있어 앞으로 공간부족문제가 약간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혁 기자)

□ 하숙촌 변천사

끊임없이 변화되는 생활문화

이제 하숙촌에서 통기타를 둘러매고 소주 한병과 새우강을 안주삼아 밤새 토론하던 모습을 보기가 힘들어졌다. 오히려 그런 일이 있다면 시끄럽다고 연락이 올지도 모를 판. 이보다는 캔맥주를 옆에 두고 각자 방에 들어박혀 채팅을 하면서 밤을 지새는 것이 요즘엔 더 자연스럽다.

변화하는 하숙 자취촌의 풍경은 기본적으로 개인주의의 만연이라는 사회분위기와 함께 한다. 모르긴 해도 이제 그냥 한번 어울려 시끌벅적하게 노는 일은 별로 없다. 그보다는 앞에서 밝혔듯이 컴퓨터나 비디오 음악듣기 등의 개인적 취미나 당구 포켓볼 등 몇몇이 모여 조용히 노는 것이 더 인기가 있다. 즐비한 비디오방과 오락실 당구장 등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실제로 회원제로 운영되는 미래영상의 회원 수는 5천여명, 하루 이용자는 4백여 명이 넘는다고

한다. 지역주민들도 회원의 다수를 차지했지만 자하연도 또한 이 수의 상당량을 차지 한다.

학교주변 곳곳에 새롭게 생겨나는 편의점이나 24시간편의점, 빨래방 등에서도 생활상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이런 공간은 간편함에 대한 자하연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귀가의 부담이 없는 자하연들이 출출한 밤에 편의점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것은 당연지사. 가장 잘 팔리는 메뉴는 만들기 쉽고 먹기 편한 라면과 통조림이라고. 24시간 편의점도 이들의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공간이다. 따뜻한 살림의 하숙 자취생들에게 24시간편의점은 적은 돈으로 밤새 술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5천원정도면 일주일분 빨래를 쉽게 할 수 있는 빨래방도 자하연들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엔 자하연과 통학생은 옷차림에서 구분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차림새가 피격해 했지만 그것도 이제는 옛말에 지나지 않는다. 요즘의 자하연들은 여느 학생들과 다를 바 없이 깔끔한 옷차림이다.

하숙 자취생들이 통학생 못지 않은 문화생활을 누리게 된 때는 재화용 센터나 중고생활용품점이 활성화 된 것과 관련 있다. 예전 같으면 학생 형편에서 대부분 고가인 가전제품을 구입할 엄두를 못냈지만 텔레비전이나 비디오 세탁기 냉장고 등을 구입할 수 있을 정도다.

하숙 자취촌의 새로운 경향은 지방 학생뿐 아니라 서울학생들도 더러 자취나 하숙을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 학교에서 먼 거리에 집을 둔 이들이지만 단지 통학시간의 문제보다는 독립하고 싶은 욕구가 가장 큰 이유다. 과외와 아르바이트로 한달에 30만원정도 하는 월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이 모교(경제2)은 "독립해 사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일단 자유롭고 가족속에서 보지 못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서 좋다"고 말한다.

이러한 세부적인 변화와 함께 자취 하숙촌 전체는 원룸화 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생활에 필요한 부엌이나 화장실들이 방 하나에 다 들어있는 원룸은 트인공간을 좋아하고 간접방이 싫어하는 신세대의 구미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 이런 호응 때문인지 몇 년전까지만 해도 양육집으로 불리던 학교 후문과 외대후문을 잇는 골목은 최근 2-3년 사이 원룸 골목으로 탈바꿈했다. 차고로 개조하거나 골방을 세우던 집주인들이 관리하기 쉽고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원룸으로 신개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학중 학교 후문 원룸에서 일어났던 살인 사건처럼 격리된 환경속에서 인간은 소외되기 쉽다. 또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게 하는 공간구조속에서는 스스로 상실감에 빠질 수도 있다.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소통의 방식을 모색해 나가야겠다.

(최용섭기자)